



● 호스트 MP3플레이어 개발

넥스트웨이



USB 메모리카드, 휴대형 하드디스크(HDD) 등 외장형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MP3플레이어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넥스트웨이(대표 범재룡 <http://www.nextway.co.kr>)는 USB메모리카드 등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악, 어학파일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신개념의 '호스트(Host) MP3플레이어'와 '호스트 MP3CD플레이어'를 선보였다.

범재룡 넥스트웨이 사장은 "외장형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호스트 MP3 플레이어가 기존 메모리 내장형 MP3플레이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메모리 용량을 늘려서 새로운 MP3플레이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텔레칩스, 에스캠 등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호스트플레이어는 USB, 콤팩트플래시 등 다양한 휴대형 저장장치를 탁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MP3 플레이어에 비해 메모리 확장이 쉽다.

특히 외장형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파일재생, 저장 등 모든 기능을 기존 제품과 동일하

게 사용할 수 있다.

호스트 MP3CD플레이어도 내장형 메모리 없이 기존 USB 메모리와 연결해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으며 CD에 기록돼 있는 수많은 MP3 파일을 USB 메모리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 2010년 "글로벌 톱 10"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오는 2010년에 현재 매출의 10배인 240억달러를 달성, 글로벌 톱 10 가전업체로 재도약을 꾀한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24억달러(연결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는 2~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전세계 전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분업·협업화하기로 해, 공백기간을 단기에 매우겠다는 전략이다. 분업·협업화 형태는 대우가 가진 핵심 경쟁력인 디자인과 제조 등을 제외한 제품 개발, 마케팅 등 나머지 영역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다.

김사장은 "대우는 디지털 TV사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PDP와 LCD 패널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무한정 자원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며 "대신 특정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들과 분업·협업을 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일렉트로닉스는 LCD 및 PDP 패



널 공급과 무선기술을 비롯한 홈네트워크 기술개발, 대규모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등의 분야에서 국내, 일본 및 유럽 등지의 전자 관련 전문업체들과 제휴를 맺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세대 전략사업인 디지털 TV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영국 북아일랜드 생산법인에서 월 2000대 규모로 PDP 텔레비전을 생산하기 시작한데 이어 오는 10월께부터는 폴란드 생산법인에서 월 5000대 규모의 PDP 텔레비전을, 미주지역을 겨냥해 멕시코 생산법인에서도 월 2000대 규모의 PDP TV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우는 PDP를 포함한 디지털 TV 전량을 구미공장에서 생산했었다.

김 사장은 “그동안 대우 생존에 대해 국내 외적으로 우려섞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했다”며 “미래 성장산업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세계적인 디지털 가전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선랜 2.3GHz 대역 휴대인터넷 개발

데이콤

데이콤(대표 박운서 <http://www.dacom.net>)은 무선랜 기술을 2.3GHz 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회사측은 자사가 개발한 시스템이 2.4GHz대역은 물론 2.3GHz대역 및 5GHz대역을 통해서도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동로밍기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어느 대역을 지원하는 기지국 주변에 있든 무선랜 카드를 바꿔 끼우지 않아도

끊김 없이 초고속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20MHz는 물론 10MHz, 5MHz 대역 폭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채널의 기본 대역폭을 협대역화해 주파수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제표준기술인 IEEE802.11a/g 기반 무선랜 기술을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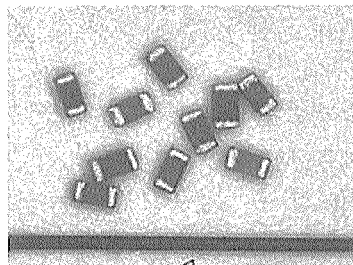
한편 데이콤은 자사 휴대인터넷서비스에 적용할 후보 기술로 아이버스트, 브로드스툼, 나비니 등과 함께 무선랜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소형 MLCC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MLCC 기술력에서 일본을 처음 추월한 것은 물론 세계 1위 품목의 가능성을 한층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기(대표 강호문)는 머리카락 굵기와 크



머리카락



기가 비슷해 눈으로 형상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극소형이고 무게도 90 μ g으로 초경량인 '0402(0.4X0.2mm) MLCC'를 일본 무라타보다 한 발 앞서 개발, 내년 상반기중 양산에 들어간다.

0402 MLCC는 기존 최소형 제품인 0603 MLCC에 비해 부피가 3분의 1 이하이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중인 1005 MLCC에 비해 그 부피가 15분의 1에 불과한 초소형 제품으로 휴대용 전자기기 초소형화에 파급 효과가 커 향후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다.

또 0402 MLCC는 소주 한 잔 분량의 가격이 1500만원 이상에 달해 금보다 비싼 고부가 제품이다.

삼성전기는 $\pm 2\mu$ m 수준의 초정밀 내부전극 인쇄기술과 외부전극 폭을 100 μ m 미만으로 형성하는 외부전극 도포 기술을 개발하고 칩의 정확한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압착·절단·연마 공정에 신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번에 극소형 MLCC 개발했다.

무선인터넷 핵심 칩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노트북PC, 개인휴대단말기(PDA), 휴대폰 등 각종 모바일 제품에 사용되는 무선인터넷용 핵심 칩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무선인터넷용 핵심 칩 국산화에 따라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국내 무선 인터넷 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무선랜 신호를 제어하는 MAC(media access controller)와 모뎀역

할을 하는 BBP(Baseband Processor)를 원칩화한 시스템온칩(SoC) 제품으로 국제 무선 랜 표준규격 802.11b를 만족하며 무선중계기 등 무선인터넷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된다.

1.8V의 저전압 환경에서 동작하며 슬립(sleep) 모드를 지원, 전력소모를 대폭 줄였고 칩 크기가 12x12mm로 작아 모바일 세트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을 내장해 해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현재 무선랜에 관한 국제 호환성 인증과 보안인증 획득절차도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무선랜 프로젝트팀 조현우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품 개발로 무선인터넷용 핵심 반도체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홈·모바일 분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과도 접목된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802.11b 규격 제품 외에도 내년에는 무선 중계기(AP)가 설치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 '핫스팟(Hotspot)' 지원의 휴대폰용 802.11b 제품과 802.11a, 802.11b, 802.11g용 제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IDC에 따르면 무선랜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7%씩 성장해 2006년에는 11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PDP 주기판용 콘덴서 시장 진출

삼영전자

삼영전자(대표 변동준)는 최근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주기판용 알루미늄전해



콘텐츠 개발을 끝내고 삼성SDI에 샘플을 제공,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LG전자 PDP사업부에도 공급로를 뚫기 위한 기술 지원 상담을 적극 벌이고 있다.

삼영전자는 세트 업체들이 수출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긴 수명·저노이즈 등 특성이 우수하고 크기도 작은 고품질의 PDP 전용 콘텐츠를 적극 채용,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시장진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삼성SDI 등 세트업체에 PDP 전원공급단용으로 제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만큼 주기판용 제품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PDP용 메인기판 콘텐츠 증설

삼화전기

삼화전기(대표 서갑수)는 세트업체의 PDP 모듈 생산량이 연말께 월 평균 6만대에서 내년 상반기 월평균 10만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PDP 메인기판용 알루미늄 전해콘덴서의 생산 설비를 단계적으로 증설한다.

이 회사는 특히 PDP TV 전담 TF팀을 구성한 가운데 해당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고온·고리플(ripple) 현상에 내성이 강한 전해액과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PDP 메인기판용 알루미늄 전해콘덴서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휴대폰 수출 5억달러 목표

세원텔레콤

세원텔레콤(대표 홍성범)은 하반기에 국내외 휴대폰 시장에 카메라 및 동영상 컬러단말기 19종을 내놓고 올해 수출목표인 5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세원텔레콤은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세계 최 소형 초경량 GSM 컬러단말기를 비롯해 CDMA 카메라폰 2종, CDMA 동영상폰 2종, GSM 카메라폰 2종, GSM 컬러단말기 8종, GSM 흑백단말기 5종 등 총 19종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무게가 72g에 불과한 초경량 GSM 컬러단말기인 SG2000 시리즈 8종은 256 컬러 LCD와 16폴리 사운드를 적용했으며, GSM 카메라 단말기인 SGD1000과 SGD1010 모델은 65K TFT LCD와 64폴리 사운드를 탑재했다.

CDMA 단말기는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SDD2000과 SDD2100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채널당 100W 출력 지원 6.1채널 홈시어터시스템 출시

이트로닉스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inkel.co.kr>)가 국내서는 처음으로 채널당 100W의 출력을 지원하는 6.1채널 홈시어터 시스템(모델명 랩소903)을 출시한다.

이트로닉스가 이번에 내놓는 제품은 CD·DVD타이틀이나 MP3파일 등 DVD플레이어가 재생하는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로 전환하지 않고 디지털 신호를 직접 받아 디지털 영역에서 증폭, 저음·고음 조정은 물론 음향 보정 등 모든 작업을 디지털 형태로 처리



한다.

따라서 왜곡이 없이 정확한 원음 재생이 가능하며, 공급전력대 출력전력비가 90%이상으로 고효율을 자랑한다.

또 후면 중앙에 1채널을 추가한 6.1채널로 구성해 최신 서라운드 방식인 DTS-ES·돌비 디지털 EX와 같은 6.1채널 포맷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돌비 프로로직Ⅱ·DTS Neo6 등의 디코더를 내장해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음향을 제공한다.

● 유럽 EDGE규격지원 베이스밴드칩 첫 개발

인텔코리아

인텔코리아(대표 김명찬)는 유럽형 2.75세대 이동통신방식인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SM Evolution) 규격을 지원하는 단일칩 베이스밴드(모델명 PXA800EF)를 업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EDGE는 현재 유럽시장의 이동통신 표준규격인 GSM/GPRS(2.5세대)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약 384kbps)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어 동영상, 고화질 사진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송수신하는데 유리하다.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빠르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텔의 이번 제품은 EDGE 통신규격을 지원하는 156MHz 속도의 디지털신호처리기(DSP)에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312MHz 속도의 엑스스케일 프로세서, 4MB 플래시메모리, 512KB의 S램 등을 하나의 칩에 통합, 전력소모량과 크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인텔은 맥스, 일렉트로

빗 등 기존 고객사 이외에 국내외 대형 메이저 휴대폰업체에 내년 1분기에 공급해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1000개 단위로 개당 29.15 달러에 공급될 예정이다.

● 수출용 휴대폰 7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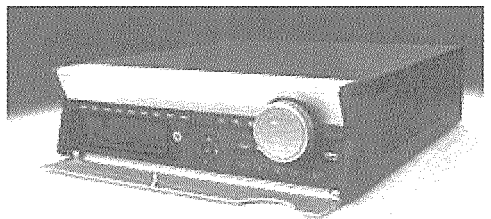
코디콤

코디콤(대표 안종균·박찬호 <http://www.kodicom.com>)은 9채널을 지원하는 임베디드형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KSR 709'을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품은 초당 200프레임 녹화를 지원하며 네트워크상에서 이미지 전송과 모션감지, 스케줄 녹화, 백업 기능, CDRW 백업장비 장착, 마우스지원, 그래프형태의 간편한 이미지검색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지원한다.

이 회사 원재홍 과장은 “동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보안감시용도 외에도 동영상이 필요한 모든 웹 사이트에 활용할 수 있다”며 “미려한 외관 디자인과 성능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번 9채널 제품 출시에 이어 오는 11월에 16채널과 9채널 신모델을 추가로 선보여 임베디드 DVR 라인업을 총 8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ISO9001 인증 획득

코칩

벤처기업 코칩(대표 손진형 <http://www.korchip.com>)은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코칩은 주력제품인 전기이중층콘덴서(EDLC)에 대한 설계·개발·생산·부가서비스 부문에서 ISO9001 인증을 획득, 경영체계·업무 프로세스·품질보증·고객만족 등 모든 부분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EDLC 영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품질경영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재해 방지용 무독성 케이블 개발

LG전선

LG전선(대표 한동규 <http://www.lgcable.co.kr>)은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잘 나지않는 재해방지용 무독성 케이블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수직 상태에서 버너를 이용, 섭씨 816도 고열로 40분간 계속해서 연소시킨 결과 80cm 정도만 연소되고 자체 소화돼 기존의 난연 성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의 PVC 제품과 달리 유독성 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연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연소 후에도 가시거리가 평상시의 70~80% 수준을 유지, 화재시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LG전선은 국제 수준인 IEC 기준에 맞춰 난연성, 연기 밀도, 무독성 부문 등에 대한 성능

시험을 실시했다.

LG전선은 제품 명칭을 '제로' (독성물질인 할로겐이 없고 연기가 적다는 뜻) 케이블로 정하고 지하철, 공항, 병원, 백화점, 학교 등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슬림형 HD급 DVD 콤비 출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m>)은 두께 84mm의 초슬림형 HD 콤비(모델명 LC-830, 930)와 43mm의 고급형 DVD플레이어(모델명 DVD-E970D)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HD 콤비는 국내에서 두께가 가장 얇은 것으로 지난 5월 LG전자가 출시한 제품을 HD급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DVD±RW규격으로 기록된 디스크를 HD급으로 재생하고, LG전자가 올 상반기에 출시한 DVD 리코더를 통해 녹화한 디스크도 재생한다.

DVD는 물론 VCD·CD-R/RW·MP3·JPEG·WMA 파일까지도 지원하며, 자동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영화시작 전의 불필요한 경고메시지와 광고 등을 건너 뛰고 바로 재생화면으로 이어진다.

LG전자는 향후 디지털 복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급증할 것이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복합형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DVD플레이어가 이미 성장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LG전자측은 이번 신제품과 같이 디자인과 기능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